

삼신인이 쏜 화살에 맞은 돌...삼성신화의 증거

[문화유산 재발견 28] 제주도기념물 제4호 삼사석

데스크승인 2014.09.25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에 인간 세상이 열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성신화.

'탐라지'와 '영주지'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제주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라산 북녘 기슭 세 개의 구멍에서 고을나와 양을나, 부을나라는 삼신인(三神人)이 솟아나왔다. 구멍은 현재 제주시 삼성혈에 있는 모흥혈(毛興穴)이다.

이들은 수렵을 통해 가죽옷을 구해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삼신인이 해안에 떠밀려온 옥함을 발견해 열었더니 푸른 옷을 입은 벽랑국(碧浪國)의 삼공주(三公州)와 함께 송아지, 망아지, 오곡씨앗 등이 들어있었다.

이들은 나이 순서대로 공주를 배필로 정한 후 화살을 쏘아 각각 일도, 이도, 삼도에 거처를 정한 후 농사를 지었다. 제주에 인간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이때 삼신인이 쏜 화살에 맞았다는 세 개의 돌맹이가 전해오고 있으니 바로 '삼사석(三射石)'이다.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4호로 지정된 삼사석은 화살을 쏘았다고 해 일명 '시사석(矢射石)'이라고 일컬어지며, 해당 장소는 '살쏜디왓'으로 불려왔다.

삼사석은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를 지나는 도로변 북측에 있는데 이곳 일대의 도로명 주소가 '삼사석로'다.

삼사석은 '삼사석각'이란 석실(石室)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직경 55cm가량의 현무암 2개로 구성돼 있다.

이 석실은 1813년(순조 13) 양종창(1767~1851)이 삼사석을 수습해 보관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좌우 기둥의 판석에는 '삼신 유적이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남은 것을 긁어모으고 수습해 석실에 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삼사석 바로 옆에 있는 삼사석비(三射石碑)는 조선 1735년(영조 11) 김정 제주목사가 삼성신화를 전해 듣고 세운 것이다.

비의 앞면(前面) 좌우(左右)에는 '모흥혈고(毛興穴古) 시사석류(矢射石留), 신인이적(神人異蹟) 교탄천추(交嘆千秋)'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오래 전 모흥혈 화살 쏜 돌 남아 있으니 신인들의 기이한 자취를 오래도록 서로 비추리라'라는 의미다.

비의 뒷면(後面)에는 1930년 고한룡(高漢龍)·고대길(高大吉)·고영경(高永炅) 등이 합동으로 다시 지었다는 뜻을 담은 '경오 3월 7일 개수(庚午三月七日改修)'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삼사석비는 높이 1.13m에 너비 0.43m, 두께 0.18m이고, 석실의 규모는 높이 1.49m에 전후 너비 1.01m, 좌우 너비 0.67m 가량이다.

삼사석과 삼사석비는 사각형의 담장에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는데 담장의 높이는 1~1.5m 가량으로 제주 자연석을 이용한 겹담으로 쌓여 있다.

삼사석의 바로 서쪽에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1998년에 건립한 '삼사석지(三射石址)' 표석이 세워져 있다. 이곳 역시 제주석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창실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전 제주산업정보대학 부학장)은 "삼사석은 한반도 단군신화와 같은 시기인 4300년 전을 배경으로 한 삼성신화를 뒷받침하는 유물"이라며 "삼신인이 혈투가 아닌 활쏘기란 평화적 방법으로 삶의 터전을 분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